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독서후 영감록

윤형준

◆ 빈센트 반 고흐, 그와 나와 의 만남

1997년 유럽여행을 하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두 번이나 들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들렀을 때, 반 고흐 미술관 관람을 빼먹었기 때문이다. '반 고흐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들을 보았고, 그의 그림에 매료되었다. 그의 그림도 환상적이었지만, 그림보다도 더 나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은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난 그림에 대한 순차적 접근과 열정, 거장들과의 교류를 통한 끊임없는 발전이었다. 당시 고흐에 대한 여운을 남기고 서울에 왔었다.

그런데 1999년말, 서점에서 이 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날 당장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은 고흐가 실제로 주로 그의 동생 '테오'와 나눴던 편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며, 제 3자의 눈으로 고흐를 바라본 것이 아닌 그의 생의 순서대로 실제 그를 느낄 수 있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이 책은 2000년, 내가 장교로 임관하여 상무대 포병학교에서 초군반 교육을 받을 때, 시간을 쪼개어 3개월에 걸쳐 탐독을 하였고 그 이후로 무기력해짐을 느낄 때, 손을 뻗어 보곤 했었다. 그러나 전역한 이후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다시금 그의 기운을 받고자 오늘 다시 만나보려 한다.

◆ 그의 어록과 나의 Reflection

°p. 13.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다정하고 애정어린 관계나 친밀한 우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세련되고 예의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애정이나 우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무언가 공허하고 결핍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 나도 고흐와 테오와의 관계처럼 진정 가슴에 있는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 대상은 남녀노소와 상관없다.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겠다...

°p. 17. 진지하게 독서에 몰두했다. 성경. 미술사의 <프랑스 혁명>. 지난 겨울에는 셰익스피어와 빅토르 위고의 책, 그리고 디킨즈와 스투우. 최근에는...

그런데 이처럼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부주의해지기 쉬워서 이따금 엉뚱하거나 충격적이고, 관습과 예절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 고흐는 나의 ideal self였던 것 같다. 나는 '평생학습예술인'이 되고자 하는데, 고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 혹자는 그가 미치광이이며 그의 삶은 혹독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한가지에 대한 지독한 열정은 내게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다. 학습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것. 이는 고흐처럼 미치광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요즘은 스스로 '덜 미치광이'처럼 되가는 날 보며, '미치광이'가 되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해본다. 그리고 나도 이 당시의 고흐처럼 시간을 갖고 독서에 몰두하고 싶다. 회사 조직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은 내 생을 음미하는 깊은 독서를 하고 싶다.

°p. 21. 고흐의 그림 '남녀 광부들'

⇒ 1880년, 그가 28세일 때 그린 그림이다. 당시 고흐의 암울한 여건을 반영하듯 그림이 어둡다. 예술가는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

- p. 41.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충실한 훈련은 게을리한 채 승리자가 되려고 허겁지겁 달려왔을 것이다. 그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오직 그 하루만 사는 사람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해부학, 원근과 비례 등에 대한 공부를 즐겁게 할 정도로 그림에 신념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계속 노력할 것이고, 느리지만 충실하게 자기 세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 ⇒ 이 말에는 상당한 power가 있다. 고호 자신은 충실하게 자기 세계를 완성했던 사람이며, 기본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고호 미술관에 가보면 그가 그림을 처음 접했을 때 그랬던 그림들이 나오는데, 손모양 데생해놓은 것들이었다. 데생으로 시작하여 그가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27세였다고 한다. 어렸을 때의 재능을 발견하고 일찍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늦더라도 충실히 그리고 꾸준히 몰두한다면 자기완성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나는 기본기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벌써 응용을 해서 풍경화를 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봐야 할 때이다. 데생 연습이 중요하다.
- p. 59. 예술은 끈질긴 작업,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 작업,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한다. ‘끈질기다’라는 표현은, 일차적으로 섬없는 노동을 뜻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 ⇒ 스스로 고호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다보니, ‘외곬수’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 것 같다. 고호의 말이 맞다. 몰두하는 것과 내 견해-종국적으로 옳은 것이어야 하겠지만-를 포기하지 않는 것... 하지만 순수 예술과 HRD 분야의 차이점을 규명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감동이 없는 것은 죽은 예술이요, 죽은 교육이다.
- p. 61. 새벽 4시면 잠에서 깨어나 창가에 앉는다. 그리고 목초지와 목수의 작업장, 일터로 나서는 사람들, 들판에서 커피를 끓이기 위해 불을 피우는 농부들을 스케치하지. 그런 낯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니?
 - ⇒ 새벽 4시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새벽부터 무언가에 몰두하여 자신의 작업을 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 나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다시금 시작해볼 가치가 있다.
- p. 62. 화가의 의무는 자연에 몰두하고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감정을 작품 속에 쏟아붓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된다. 만일 팔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그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행위일 뿐이다. 진정한 예술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작업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된다.
 - ⇒ 이것이 나의 직업관이다. 분명 고호는 살아있을 당시에는 큰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렇기에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했다. 고호처럼 힘들게 살고 싶진 않지만, 돈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진 않다. 진정으로 사람들이 느끼고 감동하고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만드는 이의 의식이 순수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진정한 예술가가 될 것이다.
- p. 70.
 - ⇒ 고호가 자신의 그림을 팔 생각도 하고 있다. 고호는 경제 관념이 전혀 없다. 이것은 아마도 p. 62에 나타났던 바와 같은 ‘비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 같다. 안타깝게도 고호의 초기의 생각은 내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있다. 순수성을 잃으면 안되겠지만, 조화로운 경제관념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 p. 72. 내 그림이 그리 잘 된 것 같지 않으면 거리낌없이 충고를 해다오. 망설임없이 네 충고를 받아들이겠다. 물론 잘못을 고쳐나가는 일은 그걸 지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나는 충고를 듣고도 목살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를테면 모베

가 1월에 지적해준 것을 이제야 겨우 참고하게 되었다. (1882년 8월 20일)

⇒ 참 중요한 자세이다. 충고를 망설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충고를 들을 때는 쓰지만 나중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됨을 안다. 자기 반성적 자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충고를 들은 지 7개월 후에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다.

°p. 77. 나는 색에 대한 감각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고, 내 속에 이미 유화의 뿌리가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 고희는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전력투구했다. 자신이 어느 위치에 와있는지,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자기 확신.

°p. 89. 사실 10년 후의 문제는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지내느냐에 달려 있다.

⇒ 참 현실적인 것 같다. 나의 1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보지만, 꾸준하고 포커스된 노력 없이는 10년 후의 비전은 달성할 수 없다.

°p. 99. 사람이 평범한 이유는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오늘은 이것에 따르고 내일은 다른 것에 맞추면서, 세상에 결코 반대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 때문이다.

⇒ 혹자는 내가 너무 곧아서 부러져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말을 하곤 한다. 평범하게 살고 싶진 않다. 나를 찾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며, 그것을 나누며 살고 싶다.

°p. 102. 우리가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려 노력해야 하는 까닭은 오직 자신이 느끼는 것을 더 잘, 더 정확하게, 더 심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며, 쓸데없는 말은 적을수록 좋다네.

⇒ 예술가나, HRD를 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다. 예술가는 감동을 주고 HRD를 하는 사람은 변화를 이끌어낸다. 스스로 기술이 부족함을 느낀다. 나는 HRD를 하는 예술가이다. 나에게 있어 더 잘, 더 정확하게, 더 심오하게 표현하는 기술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반드시 배양해야 한다.

°p. 106. 삶이 아무리 공허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더라도, 아무리 무의미해보이더라도, 확신과 힘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어서 쉽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간다.

⇒ !!

°p. 110. 훌륭하고 유용한 일을 해내려는 사람은 대중의 승인이나 평가를 기대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되며, 열정적인 가슴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들의 공감과 동참만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열정적인 가슴을 지닌 사람들로 만들어진 '꿈의 조직'을 꿈꾸고 있다. 그것이 단지 꿈으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얼마나 현실에서 가능성을 찾고 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p. 101. 겨울 내내 이 그림(감자먹는 사람들)을 그리기 위해 머리와 손 그리는 연습을 해왔다. 강한 열의를 갖고 작업에 임했기에, 며칠 동안은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것 같았다.

⇒ 창조에 대한 열정과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세밀함과 집념을 배워야 했다.

°p. 128. 진정한 화가는 양심의 인도를 받는다. 화가의 영혼과 지성이 붓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붓이 그의 영혼과 지성을 위해 존재한다.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캔버스가 그를 두려워 한다.

⇒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며, 어떻게 붓을 사용할 것인가...?

°p. 130.

- ⇒ 고희가 33살 때 전시회를 통해 많은 화가들을 만나게 된다. 베르나르, 고갱 등...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의 거장들과 교류하는 것은 더 큰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파리에서 1년 6개월동안 2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한다. 미치지 않고서, 광기어린 영감이 샘솟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 p. 134. 상상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돈을 받을 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 ⇒ 나는 이 정도로 Fully engaged 되어 있는가? ASTD 마지막 Key note speaker인 Jim Loerh가 이야기했던 자신의 미션과 연관된 Full engagement가 바로 이런 것일 게다.
- p. 137. 졸라, 플로베르, 모파상, 공쿠르 형제, 리슈팽, 로데, 위즈만 등 프랑스 자연주의자들의 소설은 정말 훌륭하다. 그런 소설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 ⇒ 고희는 독서도 많이 했다. ‘나는...?’이란 물음 앞에 상당히 부끄러워진다. 사실, 나란 놈은 소설과는 거리가 먼 놈이다. 소설에는 너무나 흥미가 없다. 이번 방학 때는 소설에 손을 대어 보고자 한다.
- p. 150. 모파상의 <피에르와 장>에서.. “소설가에게는 소설을 통해 자연을 더 아름답고, 더 단순하며, 더 위안을 줄 수 있게 과장하고 창조할 여유가 있다.” “재능은 오랜 인내로 생겨나고, 창의성은 강한 의지와 충실한 관찰을 통한 노력으로 생긴다”
- ⇒ 고희는 소설가들에게서도 참 많은 영향을 받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했다. 마치 내가 고희의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독서의 중요성... 삶이 담겨 있는 걸작을 읽는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다.
- p. 160. 화가들이 혼자 사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고립되어 있으면 패배하기 마련이거든...
- ⇒ 고희의 고갱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것 같다. 마치 내가 나의 친구 충호에게 느끼듯, 주고 받음의 공리 속에 커나가는 자아, 삶...
- p.173. 철학자들과 미술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확신했고, 시간의 무한성, 죽음의 무의미함, 평온과 헌신의 필요성과 의미를 인정했지. 그는 다른 모든 예술가보다 더 위대한 예술가로서, 대리석, 점토, 물감을 경멸하면서 살아있는 육신으로 일했고 평온하게 살았네. 신경질적이고 둔한 우리 현대인의 두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이 두려움없는 예술가는 조각을 하지도, 그림을 그리지도, 글을 쓰지도 않았네. 단지 자신의 말을 통해 살아 있는 사람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지.
- ⇒ 고희의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가 돋보인다. 그의 삶을 바라보는 경지 또한 굉장한 수준이었음을 느낀다.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아마도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예술가는 아닐 것이다.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고희만큼의 인물이라도 사람들에게 살아있고 긍정적인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인물이 되고 싶다.
- p.175. 클로드 모네가 2월에서 5월까지 열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니 정말 훌륭하다. 작업을 빨리 진행한다고 진지하지 않게 일하는 건 아니다. 그건 그 순간의 상태와 경험에 달린 문제이다. 자연에 대한 진지한 감정이 강할 때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한 채 붓을 휘두르게 된다. 그럴 때는 붓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관련을 맺는다. 그런 순간이 늘 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답답한 날이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지. 쇠방망이를 얻으려면 쇠가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 하지 않겠니.
- ⇒ 나의 삶 속에서도, 단기간내에 몰두하여 열사람이 하기 힘든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낸 적이 있었다. 나는 당시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다. 언제

다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p.180. 급하게 그린 그림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복잡한 계산을 해두었기 때문이다.

⇒ 99% 준비하고 1%쓴다는 말이 있다. 중요한 순간을 위해 평소에 구상을 해두어야 한다.

°p.183. 건강은 확실히 좋아졌지만 희망이나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망은 완전히 부서져버렸다. 이제는 오직 필요에 의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그림을 그릴 뿐이다.

⇒ 고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이다. 이런 고희를 보며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하지만 내 삶에서도 항상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내 깨어나서 무너지지 않았다.

°p. 187.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색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 내가 나의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집착해야 할까...?

°p. 196. 나는 늘 두가지 생각 중 하나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는 물질적 어려움. 다른 하나는 색에 대한 탐구... 색채를 통해서 무언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로 보완해주는 두가지 색을 결합함으로써 연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 그 색을 혼합하거나 대조를 이루어서 마음의 신비로운 떨림을 표현하는 일, 얼굴을 어두운 배경에 대비되는 밝은 톤의 광채로 빛나게 해서 어떤 사상을 표현하는 일, 별을 그려서 희망을 표현하는 일, 석양을 통해 어떤 사람의 열정을 표현하는 일, 이런건 결코 눈속임이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나.

⇒ 고희의 치명적 단점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받았다는 것이다. 고희의 삶을 좋아하는 나로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긴다. 나의 열정과 금전 둘 중의 우선 순위를 매기자면 당연히 열정이지만, 금전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것을 고희가 젊은 시절에 일찍 터득했다면 어땠을까...? 그의 걸작들이 나올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고희 다시 보기

이 책을 처음 접한 지 3년 만에 다시 보게 되는 지금, 느낌이 또 새롭다. 고희의 개인적 삶은 분명 불행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뇌하고 살았으며, 그 어려움을 스스로의 열정으로 채우려하며 살았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며, 미련할 정도로 대단한 이기주의자이다. 자신의 열정만을 고집했으므로...

나는 고희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 38세라는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으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따져보자면 12년 동안 그림만 알며 경지에 도달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는 몰두하는 것에 몰두하였다. 어찌보면 바보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의 광기어린 열정과 집착이 그의 수명을 단축시킨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의 12년은 보통사람의 12년과는 다른 기간이었던 것 같다. 어찌보면 100년과도 바꿀 수 있는 12년!

열정만큼은 고희를 본받고 싶다. 무언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고희를 떠올려야 한다. 고희는 늦게 시작하여 12년만에 이루었지 않는가?! 차근차근 기초부터 하지만 온 정성을 다하여 쌓아나간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고희의 삶 전체를 본받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나의 스승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지금도 내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존재이다. 나의 열정이 사그러드는 것을 느낄 때, 나는 다시 이 책을 펼칠 것이다.

<끝>